

인사말

존경하옵는 원로교수님
그리고 동료, 후배회원 여러분

제18대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에 취임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고, 동시에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맞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산부인과학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산부인과학회는 현재 낮은 의료 수가에 따른 개원가의 빈사상태, 저출산에 따른 환자 감소, 전공의 수급 문제, 개원의협의회와의 관계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분만을 하지 않는 개원가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각 진료과별 첨예한 경쟁 속에서 산부인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여야 하는 문제도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는 저출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사회현상에 기인한 것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현실적인 의료보험수가라는 제도적 결함이 더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산부인과의 심각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산부인과 의료보험수가를 올리고 새로운 의료보험 수가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며 수가가 열악한 일부 과에 대한 특별가산에 산부인과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산부인과가 경쟁력을 갖고, 좁아진 입지와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연구와 개발을 독려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부인과 영역 확장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게을리 하지 않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통해 이 위기에서 탈출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원의협의회와의 단합과 화합의 문제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통과 상생의 시대입니다. 개원가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학회가 같이 고민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대안과 정책방향을 찾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첨예한 경쟁의 시대에 산부인과 전체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는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더욱 튼튼한 학회로 발돋움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원을 감동시키는 학회, 재미나는 학회, 회원들 품 안에 있는 학회로 변하여야 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하늘을 찌르는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그곳의 지질은 얇은 화강암반 지역이기 때문에 레드우드는 깊이 뿌리를 박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레드우드는 뿌리와 뿌리가 서로를 붙들고 있어 하늘을 찌르는 나무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산부인과는 현재 화강암반 지역에 있는 레드우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산부인과도 전 회원이 힘을 합친다면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레드우드처럼 울창한 숲을 이루지 않을까요? 많은 현안들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 회원들과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때에야 비로서 산부인과의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척박한 우리 현실을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꽃을 피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박 옹 원

대한산부인과학회 임원명단

회		장	조 태 호
부	회	장	김 태 선
부	회	장	송 현 진
이	사	장	박 옹 원
부	이 사	장	민 병 열
감		사	장 중 환
감		사	정 해 원
사	무 총	장	김 상 운
학	술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영 탁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장 흡
재	정 위 원 회 위 원	장	오 성 택
편	집 위 원 회 위 원	장	윤 보 현
기	획 위 원 회 위 원	장	이 택 후
보	험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근 영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남 궁 성
수	련 위 원 회 위 원	장	허 준 용
정	보 위 원 회 위 원	장	박 문 일
고	시 위 원 회 위 원	장	유 희 석
법	제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봉
국	제 협 력 위 원 회 위 원	장	배 덕 수
대	변 인 위 원	장	박 형 무
정	책 위 원	장	이 병 석

MBC 시사매거진2580 '수상한 유도분만' 방송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

2009년 10월 18일 MBC시사매거진2580에서 방송한 '수상한 유도분만' 방송 내용에 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객관적 사실의 전달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사용되는 약제 또한 다양합니다. 유도분만을 위해서 방송에서 언급한 약제(미소프로스톨) 뿐만 아니라 자궁수축을 유발시키는 다른 약제들(프로페스, 옥시토신)의 경우에도 미소프로스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치 그 약을 사용하여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도하여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의 경우 다른 정상 산모들보다, 태반조기박리의 빈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태반조기박리로 인한 태아사망과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을 연계하여 마치 상호 인과관계가 있는 듯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 질 일이며, 방송으로 다루어질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2.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에 관하여

약 12분간의 방송 중 산부인과 전문가가 세 명 출연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견들이 일부 호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끝부분은 객관적 접근과 공정한 시각이 필요한 공영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선정적이어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심각한 불신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유도분만에서 미소프로스톨 사용의 근거

유도분만은 자연분만을 하기 위함입니다. 유도분만에서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관하여는 본 학회에서 집필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전문가가 공부하는 산부인과학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세계산부인과학회에서도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또 미소프로스톨은 WHO의 필수 약 항목(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도 포함이 되어있어 oxytocin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마치 허가 되지 않은 약을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시청자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의사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미소프로스톨을 사용하고 있다는 듯한 방송내용은 마치 의사들이 돈벌기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듯한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자연분만을 권하고 원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 어려운 현실에서도 제왕절개술을 피하고 자연분만에 힘쓰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로써 향후 제왕절개술의 빈도가 오히려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4. 적절한 대안 제시가 없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문제점만 제시하고 현실에 알맞은 적절한 대안제시가 없었습니다. 이는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게 합니다. 방송에 등장한 전문가들은 산부인과 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생각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취재를 마무리한 것은 오히려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과의 오해와 불신을 높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결론적으로

문화방송의 이번 <시사매거진 2580 - 수상한 유도분만> 방송내용은 그 제목과 내용의 선정성으로 인하여 전문가 집단과 국민들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높였습니다. 본 학회는 이러한 문화방송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내용의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Recommended Dosages			
800µg	Induced abortion ^{1,2} 800µg vaginal 12 hly (max x3)		
	Missed abortion ³ 800µg vaginal 3 hly (max x2) OR 600µg sublingual 3 hly (max x2)		
600µg	Incomplete abortion ^{3,3} 600µg oral single dose		PPH treatment & prophylaxis ⁴ 600µg oral or sublingual single dose
	Cervical ripening pre-instrumentation 400µg vaginal 3 hrs before procedure	Induced abortion ^{1,2,4} , interruption of pregnancy 400µg vaginal 3 hly (max x5)	
400µg		Intrauterine fetal death ⁵ (13-17 wks) 200µg vaginal 8 hly (max x4)	
200µg		Intrauterine fetal death ⁵ (18-26 wks) 100µg vaginal 6 hly (max x4)	
100µg		Intrauterine fetal death ⁵ (27-43 wks) 25-50µg vaginal 4 hly (max x8)	
50µg		Induction of labour ^{6,4} 25µg vaginal 4 hly (max x8) OR 20µg oral solution 2 hly (max x12)	
25µg			
Care with previous uterine scar and caesarean section			
1st Trimester		2nd Trimester	
3rd Trimester		Postpartum	
Check for updates at www.figoo.org and www.misoprostol.org			
<small>Notes: 1. Only use where legal 2. Included in the 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 3. Leave to work for 1-2 weeks unless bleeding or infection 4. Halve dose if previous caesarean section 5. Do not use if previous caesarean section: make sure you use the correct dosage - overdose can lead to complications 6. Oxytocin is first line as it is more effective than misoprostol</small>			
<small>Recommendations from the Bellagio Group (Weeks & Fairhead Int J Gynaecol Obstet 2007;99 (42):5199)</small>			

소화성궤양용제 '미소프로스톨' 함유 제제 안전성 서한 배포에 대한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분만유도> 목적으로 오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안전성 우려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미소프로스톨은 분만유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오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유도분만에서 미소프로스톨 사용의 근거

- 유도분만에서 미소프로스톨의 사용에 관하여는 본 학회에서 집필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산부인과 전문가가 공부하는 산부인과학 교과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주산기학술대회(SMFM)에서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이 약의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다른 유도분만제와 비교하여 위험성이 더 크지 않고 효과는 더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1999년 미국산부인과학회에서 유도분만에 있어서 미소프로스톨의 사용권고안을 만들었고 2009년 10월 개최된 세계산부인과학회에서도 미소프로스톨을 유도분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만들어 배포하였습니다. 또 미소프로

스톨은 WHO의 필수 약 항목(WHO Model 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도 포함이 되어있어 oxytocin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기준은 다양하며, 사용되는 약제 또한 다양합니다. 미소프로스톨 뿐만 아니라 유도분만을 위해 자궁수축을 유발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다른 약제들(프로페스, 옥시토신)의 경우에도 미소프로스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정 양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고가의 약에 비해 부작용은 비슷한 반면에 더 효과적으로 유도분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러한 약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분만을 유도하는 것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소프로스톨이 유도분만의 목적으로 고시가 안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약의 사용을 오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이 약은 유도분만뿐만 아니라 임신 시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세계산부인과학회에서도 권고안을 만들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임신 중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약제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회소식

XIX FIGO World Congress - Cape Town, South Africa 2009

2009년 10월 4일(일)부터 10월 9일(금)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re에서 2009 FIGO World Congress가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산부인과 관련 최신 의학동향으로 꾸며진 다양한 학술강좌는 물론, 문화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참석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학술대회 기간동안 참가한 의과학 전산업체들은 여성건강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FIGO World Congress는 FIGO Scientific Programme Committee 의장인 Dr. Tom Baskett의 주도하에 의과학에 기반을 둔 세계여성건강의 증진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기획되었다. 본 학술대회는 중심이 되는 Plenary session과 함께 Keynote lecture, Seminar, Free communication Session으로 구성되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주제발표와 함께 포스터 세션에 참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박용원 이사장(연세의대)과 김상운 사무총장(연세의대), 강순범 전임 이사장(서울의대), 박중신 전임 사무총장(서울의대)이 참석하여 FIGO총회(General Assembly Meeting)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였다. FIGO 총회는 3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며, 학술대회기간 중 세계각국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진행된다. 10월 8일(목)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3년 임기의 새로운 임원진이 선출되고, 이사회 구성이 인준되었다. 2012년도 FIGO 개최지는 이탈리아 로마로 결정되었다.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가족부 위원 추천의 건

- 1)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연세의대 서경 교수를 추천함(2009.10.5)
- 2)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의 건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성균관의대 김종화 교수, 가톨릭의대 신종철 교수, 연세의대 권자영 교수를 추천함(2009.10.13)
- 3)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자문위원 추천의 건
대한의사협회가 요청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자문위원으로 울산의대 이필량 교수를 추천함(2009.10.21)
- 4) 산부인과 분만 지원 관련 자문위원 추천의 건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청한 '산부인과 분만 지원 관련 자문위원'으로 순천향의대 이임순 교수, 서울의대 박중신 교수를 추천함(2009.11.12)

보험소식

1. 로타바이러스 항원검사 (나 469/ C4690526)

검사의 질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후,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산정하는 현행 산정지침을 유지함. 단, 일선 요양기관에서 실시하는 로타바이러스 신속항원검사(현장검사)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판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조기 진단의 장점이 있어 현장검사 수가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신의료기술결정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등재부 2681호)

2. 급여기준 개선요청항목 처리결과

올해 상반기에 의협을 통해 심평원에 제출되었던 급여기준 개선요청항목들의 일차 처리결과 중 완결건 보고

- 제왕절개수술 대비 수술전 검사 시행하였으나 질분만 산모들에게 실시한 검사료: 불가피하게 선택된 경우 수술전 검사 인정가능하다는 현행 급여기준을 유지함
- 자궁소파수술시 정맥마취: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시행한 경우 산정가능하다는 현행 급여기준 유지
- 골반경하 소작술: 진료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산정가능항목이라는 현행 급여기준 유지

3. 신DRG 시범사업 관련 학회, 개원의 연석회의

'09.10.12 의협에서 개최됨. 현재 1차 시범사업('09.4.20~'10.6.30) 중인 20개 질환 외에 2차 시범사업('10.7월 예정)에 적용될 50개 질병군 추가 개발작업을 위한 임상자문단 및 조정자문단 요청이 심평원으로부터 있었음. 이에 본 학회에서는 류기성 교수(가톨릭의대)를 자문위원으로 선출하였음. 향후 심평원 자문단 회의 참석 전에 의협과 회의를 개최하여 대책방안을 마련 후 참석하기로 함.

행사소식

미리보기

제 42차 전공의 연수강좌

- 일자: 2009년 12월 4일(금) 오전 9시
- 장소: 강남 세브란스병원 3층 대강당

제 3회 산부인과 의사를 위한 유방 및 갑상선질환 워크숍

- 일자: 2010년 1월 24일(일) 오전 9시
- 장소: 한양대학교 HIT 빌딩 대회의실